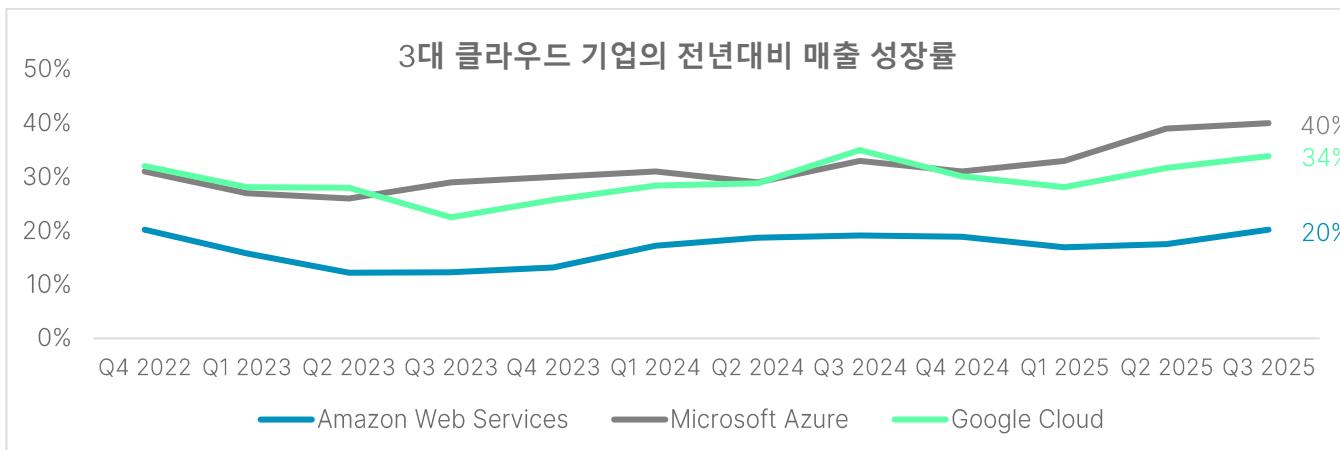


나스닥-100®: 2025년 3분기 실적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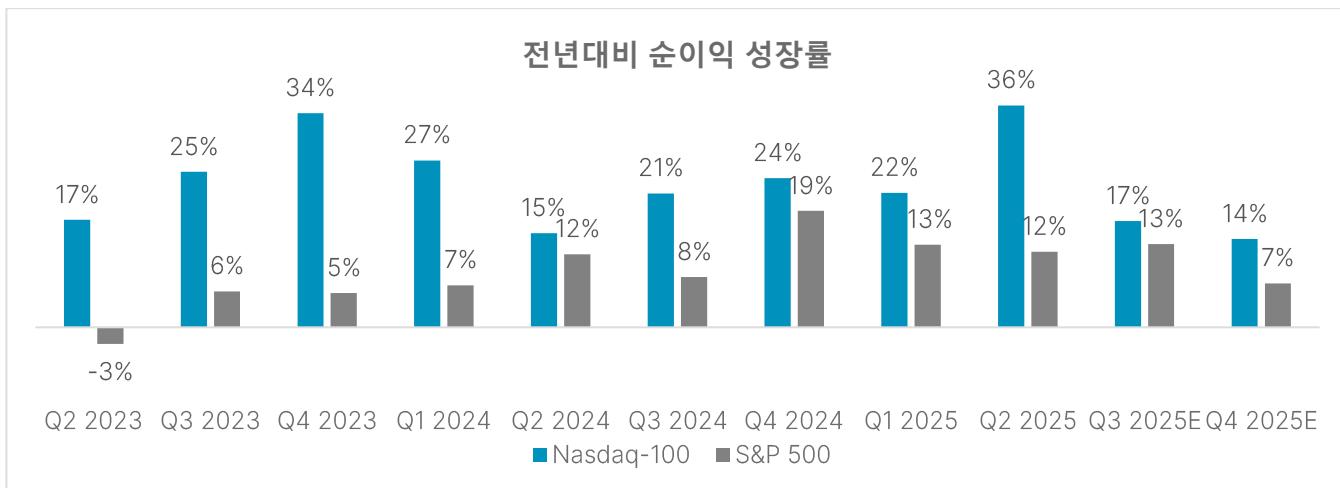
David Tsoi, CFA, CAIA, FRM, CESGA, CAMS, Head of Index Research, APAC

-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나스닥-100 기업들 중 지수 비중 기준으로 84%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매그니피센트 7 기업 모두 3분기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섰다. 최근 기술 기업들의 실적은 AI와 관련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 속에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설비투자비용(capex) 급증을 시사함에 따라 AI의 구조적 성장세를 재확인했다. 주요 플랫폼 전반에서의 클라우드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AI의 수익화 전망에 대한 확신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단 최근의 AI 투자 급증은 주목할 만하지만, GDP 대비 투자 규모는 1990년대 말의 닷컴 붐이나 19세기 철도 확장기 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출처: Bloomberg.

- 나스닥-100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17% 성장세에 있으며, 이는 10분기 연속 15%를 웃도는 기록이자 S&P 500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기술 섹터는 나스닥 지수의 전반적인 실적을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나스닥-100의 모든 ICB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22%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FactSet. 2025년 11월 19일.

주요 나스닥-100 기업 3 분기 실적 업데이트

- [엔비디아](#)는 견조한 매출 전망을 제시하며 AI 거품 우려를 잠재우고, 업종 전반에 걸친 불안심리를 완화시켰다.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 30 억 달러 높은 65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며 매출 증이익률은 75%로 전망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2025년과 2026년 블랙웰(Blackwell)과 루빈(Rubin)에서 총 5,000 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추가 계약 성사 시 매출 규모는 더 높아질 수 있다. 3 분기 매출은 570 억 달러로 62%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를 초과했다. 또한 엔비디아는 앤트로픽(Anthropic)에 최대 100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엔비디아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AI의 도입을 촉진하는 또 다른 핵심 플레이어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3 분기 매출은 18% 증가한 777 억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준이다. 애저(Azure)와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0% 성장하며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3 분기 중 클라우드 용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워크로드 전반에서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초과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제품 전반에서 AI 기능을 사용하는 월간 서비스 사용자(MAU) 수를 9 억명으로 추산한다.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수요가 가속화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3 분기에 리스를 포함한 설비투자에 총 349 억 달러를 집행했다.
- [애플](#)의 3 분기 매출은 8% 증가한 1,025 억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 아이폰 매출은 6% 상승한 490 억 달러로 집계됐으나, 애널리스트 전망치에는 다소 못 미친 수치다. 아이폰 17이 3분기에 약 2주간만 판매되었음에도, 초기 수요는 견조한 소비자 관심을 보여줬다. 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중화권 매출은 4% 감소한 145 억 달러에 그쳤다. 애플 경영진은 이번 분기에 중국 시장이 회복세로 전환하고 전체 매출도 10~12% 증가하는 등 강한 반등세를 보여 최근 몇 년 중 가장 견조한 연말 성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매출은 15% 증가한 288 억 달러를 기록했다. 3 분기 관세 관련 비용은 11 억 달러로 애플의 예상과 일치했다.
- [아마존](#)의 3 분기 매출과 이익은 각각 13%, 38% 증가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다.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매출은 20% 증가해 330 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말 쟁 GPT 출시 이후 가장 높은 전년 대비 성장률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번 호실적은 AWS의 회복력을 재확인시켰으며, 특히 오픈 AI에 엔비디아 GPU를 7년간 공급하는 380 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은 AWS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확장 역량을 잘 보여준다. 핵심 리테일 사업부문도 견조해 온라인 스토어 매출은 10% 상승한 674 억 달러, 제3자 판매 서비스 매출은 12% 상승한 425 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영진은 2025년 연간 설비투자비용이(capex)이 총 1,25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메타](#)의 3 분기 매출은 26% 증가한 512 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메타의 핵심 광고사업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를 재확인했다. 광고 실적 개선에 따른 광고주 수요 증가로 광고 평균 단가는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메타 패밀리 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수는 2025년 9월 기준 평균 35 억 4,000 만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메타는 2025년 설비투자 예상치의 하단을 40 억 달러 상향 조정해, 그 범위를 700 억~720 억 달러로 제시했다. 또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시행에 따라 3 분기에 159 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비현금성 범인세 비용을 반영했다. 메타는 300 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했으며, 이는 2023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우량 회사채 발행이다.
-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전년 대비 16% 상승한 1,023 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견조한 3 분기 실적을 거두었다. 클라우드 매출은 34% 상승한 152 억 달러로, 알파벳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부문으로서의 입지와 AI 붐의

대표적 수혜자임을 재확인했다. 클라우드 백로그는 전분기 대비 46% 증가한 1,550 억 달러로 확대되어 향후 수요에 대한 높은 가시성을 나타냈다. 알파벳 광고 지배력의 핵심 엔진인 구글 검색은 15% 성장하며 AI 챗봇의 심화된 경쟁률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AI 오버뷰, AI 모드 같은 새로운 AI 기능 투자도 전반적인 쿼리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었다. 알파벳은 10 월 한 달간 1.3 쿼드릴리언(quadrillion) 이상의 토큰을 처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 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25년 설비투자비용은 기존 예상치인 850 억 달러보다 높은 910 억~930 억 달러 사이로 예상된다.

- [테슬라](#)의 3 분기 조정 순이익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18 억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다. 관세비용이 4 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영업비용은 50% 증가한 34 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9 월 30 일자로 종료되는 7,500 달러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서두르면서, 3 분기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49 만 7,099 대를 인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6 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사업이 규제 승인 여부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 10 개 대도시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명	매출 성장률 (전년대비)	이익 성장률 (전년대비)	3 분기 매출 예상치 상/하회 %	3 분기 EPS 예상치 상/하회 %
엔비디아	62%	59%	4%	4%
マイ크로소프트	18%	25%	3%	12%
애플	8%	10%	0.2%	3%
아마존	13%	38%	1%	24%
알파벳	16%	22%	2%	24%
메타	26%	5%	4%	-6%
테슬라	12%	-29%	3%	-12%

출처: Nasdaq Global Indexes, FactSet, 기업 공시자료.

주: 모든 수치는 non-GAAP 기준으로 산출. 일회성 법인세 비용 제외시 메타의 3 분기 순이익은 186 억 4,000 만 달러에 이를 것

- 11 월 19 일 기준, 나스닥-100 기업들 중 88 곳(지수 비중 기준 89%)이 3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평균적으로 3 분기 매출과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2.3%, 5.1% 상회했으며, 63 개 기업(지수 비중 기준 72%)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다.
- 지수 비중 기준으로 보면 매출과 순이익 예상치 상회 폭은 직전 분기보다 다소 축소됐다. 종목 수 기준으로 보면, 매출의 예상치 상회 비율은 직전 분기와 비슷한 반면, 이익 예상치 상회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상치 상회		예상치 하회	
	기업 수/ 지수 비중	평균 상회율 %	기업 수/ 지수 비중	평균 하회율 %
25 년 3 분기 매출	77 / 85.9%	2.7%	11 / 3.6%	-1.0%
25 년 3 분기 순이익	70 / 75.2%	8.9%	18 / 14.2%	-8.7%

출처: Nasdaq Global Indexes, FactSet. 2025년 11 월 19 일.

면책사항

나스닥®, 나스닥 주식시장®,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100®, NDX®는 나스닥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문서에 명시된 정보는 정보제공 및 교육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으며, 문서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특정 증권이나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위한 투자 자문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나스닥 주식회사와 모든 계열사는 특정 증권의 매수나 매도를 권고하지 않으며, 특정 기업의 재무상태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이나 나스닥 지수에 대한 설명은 해당 기업이나 지수의 향후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 결과는 본 문서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언급된 설명과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투자 성과가 미래에도 지속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실행 전 직접 실사를 진행하고 투자 대상회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권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권장합니다.

© 2025. Nasdaq, Inc. All Rights Reserved.